관악문화재단 공고 제2025 - 93호

2025년 우주관문스쿨 도시· 건축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 프로젝트 제안 선정결과 공고

(재)관악문화재단 관악구문화도시센터에서는 2025 우주관문스쿨 도시・건축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팀별 멘토링을 통해 최종 프로젝트 제안 PT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5팀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최종 선정된 2팀에 대한 선정결과와 향후 일정을 안내합니다.

2025.10.10.

(재)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 선정결과 : 총 2팀(발표순)

순번	프로젝트명
2	관악의 모든 졸업을 축하합니다
	김보민, 김민지, 김상훈, 유동우
5	나무모여 숲 -관악에서 동네주민 되기 프로젝트
	Team 관감찬 (강지윤, 김준우, 우종현, 이수지, 현예림)

□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현실성	· 해당 프로젝트를 예산 안에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가? · 사업계획, 예산 수립, 지원금 사용 계획의 적절한가?	30
혁신성	· 관악구를 주제로 도시, 건축적으로 바라보는 신선한 주제의식을 가졌는가? · 별화된 주제의식으로 기획안을 발전시켰는가?	30
구체성	·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구체적인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 기획안의 요소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30
협의성	· 해당 프로젝트를 구현시키는데 긴밀하게 소통가능한 팀인가?	10
합 계		100

□ 심사총평

관악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심도있는 리서치와 기획이 인상적. 특히 '도시'와 '건축'으로 관악을 이해해 보려는 다각적인 실험이 돋보임. 관악과 청년이라는 변치않는 상수를 어떻게 요리하게 될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도약지점이 될 것.

전체적으로 우주관문스쿨 수강생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시・건축의 관점에서 관악구를 탐색해 본 제안들은 돋보였다고 평가됨. 특히 휴게공간, 빌딩숲, 경사진 골목길 등 타지역과 다른 관악의 도시·건축적 정체성을 탐구해보는 제안은 고무적임. 무엇보다 관악의 도시·건축적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 문화도시 관악의 청사진을 그려보려는 노력은 향후 문화도시 사업의 이니셔티브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그간의 노력과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멋진 발표였습니다. 쉽지 않은 기획 과정을 완주하신 다섯 팀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들 가운데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관악'이라는 모두에게 주어진 사이트를 자신의 언어로 해석해내는 '시선'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앞으로 실현까지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현, 박상규, 최정원 (가나다순)

□ 향후 일정

○ 선정된 프로젝트는 2025년 12월까지 완료함이 원칙(결과물 제출 기준)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유의사항 팀별 개별 안내 예정
○ 관련 규정 및 법령에 의거, 선정 이후라도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 : 관악문화재단 관악구문화도시센터 (02-889-5634)